

Japan Weekly Digest

2012. 1. 2

□ 특집 : 2012년도 일본경제전망

1. 2011년 일본경제 평가
2. 2012년 일본경제 전망
3. 2012년 주요 정책과제



사단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2012년도 일본경제전망

2011년 일본경제는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제약에 엔고, 유럽재정 위기 등 해외요인까지 가세함에 따라 정부·민간의 타개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012년에는 본격적인 부흥수요에 힘 입어 내수주도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성장 폭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그리고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칠 주요정책과제로서 일본재생전략, 증세, 산업공동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이 제시됨

1

2011년 일본경제 평가

□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제약, 예상외로 빠른 회복

- 2011년은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경제가 공급제약에 따른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지진으로 인한 서플라이체인의 단절과 원전사고에 따른 전력 부족난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졌으나, 예상보다 빠른 복구와 부흥으로 서플라이체인의 복원과 함께 경기도 회복국면으로 반전

□ 급격한 엔고 진행 등이 경기회복의 억제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여름 이후부터는 엔화 환율이 달러당 75엔대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엔고 기조의 정착과 함께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감속 등이 일본경제의 회복속도를 억제

〈2011/2012년도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비 %)

	2010	2011	2012
실질GDP성장율	3.1	-0.1(-0.1)	2.2(2.0)
민간소비지출	1.6	0.3	1.1
민간설비투자	3.5	-1.1	5.1
수출	17.2	0.0	6.5
내수기여도	2.4	0.6	1.8
외수기여도	0.8	-0.7	0.4
실업율(완전실업율)	5.0	4.5	4.3
소비자물가지수	-0.4	-0.2(-0.1)	0.1(-0.2)

주) : 1) 회계연도(당해년 4월~익년 3월) 기준

2) 2011, 2012년은 각각 예상치, 전망치

3) ()내 수치는 23개 민간연구기관 평균전망치

4) 정부전망치는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일본제외) 3.1%,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77.5엔을 전제

자료 : 일본 내각부(2011.12.22), 일본 민간경제연구기관

□ 3차례의 추가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는 3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흥지원을 실시하면서 경기하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부흥수요를 중심으로 한 정책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완만한 경기회복세 유지

□ 완만한 디플레 지속 하에 마이너스 1% 정도의 실질 성장

- 소비자물가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완만한 디플레 상황이 지속
- 2011년도 실질경제성장율은 후반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마이너스 1%정도, 명목성장율은 마이너스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금년에도 실질성장율이 명목성장율을 상회하는 이른바 「명실역전」이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

(1) 일본정부의 경제운영방침과 경제전망

□ 2012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 지진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 경기하강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플레 탈피, 엔고와 디플레의 악순환 방지에 총력을 경주
-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일본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물가상승 기조를 이루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경제의 재생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
- 일본정부는 일본은행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연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폴리시믹스(policy mix)하에 거시경제정책을 운영

<재정·금융정책>

- 엔고종합대책을 포함,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부흥수요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엔고 등으로 인한 경기하강 리스크나 산업 공동화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12년도 예산을 「일본재생 원년예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진 피해부흥을 최우선 실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재생 중점화 조치」를 활용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재생에 직결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
-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을 감안하여, 재정건전화를 경제 성장과 함께 필수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보장세제의 일체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운영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를 추진

- 디플레 탈피를 위해 일본은행과 긴밀한 정보교환 및 연대하에 금융정책을 운영

<외환정책>

-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은 재정·금융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
- 외국의 국제기관과 연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책개발에 노력
- 유럽의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은행과 공조체제를 구축, 대응

□ 경제전망

○ 내수주도의 경제성장

- 2012년도 일본경제는 본격적인 부흥정책 추진으로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이 예상
- 그 배경에는 부흥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및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에코자동차 보조금 부활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도 개인소비를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의 에코포인트 재개 등으로 주택투자도 확대될 전망

○ 세계경제환경도 일본경제에 유리하게 작용

- 유럽의 재정위기가 각국의 정책공조노력으로 세계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는 전제하에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이 일본의 수출,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호조로 착실히 증가하는 한편, 수입은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수출증가를 반영, 무역수지는 소폭의 흑자,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완만한 증가 예상(경상수지의 대GDP비율은 2.5%정도)
- 실질성장율, 명목성장율 모두 플러스로 반전
 - 물가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이 GDP갭(gap)의 축소 등으로 0.1% 정도 예상
 - 실업율은 완만하나마 고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이 결과 2012년도 실질GDP성장율은 2.2%정도, 명목성장율은 2.0%정도로 실질, 명목 모두 플러스로 반전될 전망
- 리스크 요인
 -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는 유럽재정위기의 심화로 세계경제 침체, 엔고 진행 및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 가속, 전력 수급 제약 등이 지적

(2) 민간연구기관의 전망

□ 민간연구기관의 경제성장율 전망은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

- 일본의 주요 민간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23개 연구기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의 증가에 힘 입어 2012년도에는 2.0%의 실질성장율 예상
- 이와 같은 전망치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감속 영향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임
 - 전망의 전제조건으로 민간연구기관들의 예상평균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79.6엔, 유가는 배럴당 99달러로 설정
 - 민간소비지출은 고용·소득 상황의 개선 외에 에코카에 대한 감세연장 등에 따른 자동차판매 증가 등에 힘 입어 완만한

증가로 23개 연구기관 모두 플러스 성장 예상

- 민간설비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23개 민간연구기관 중 22개 기관이 플러스 성장 예상
- 정부공공투자는 지진피해복구·부흥대책으로 편성된 제3차 추경 예산의 본격적인 집행으로 라이프라인(life line)의 복구사업, 공공시설의 재건사업 확대 등으로 9.2%의 대폭적인 증가 예상
- 수출은 내년에도 엔고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기 호전으로 23개 전 기관이 플러스 성장 예상

□ 정부전망치와 민간전망치간 차이발생 요인

- 한편,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같은 양자의 전망치 차이는 성장의 엔진인 수출과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서 비롯됨
-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되어 신흥국 등에도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을 낮게는 2%~5%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음
- 닛세이기초연구소에 의하면, 정부의 전망치에 대하여 정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수요에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 만약 수출 증가가 정부 예상치(6.5%)이하에 그치는 경우 기업수익 및 설비투자의 부진에 그치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가 여의치 못하여 개인소비의 신장세가 꺾일 우려도 있다는 것임
- 또한, 세수와 명목성장율과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세수 예측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그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금년말 목표로 정부여당이 기본 골격을 마무리하게 될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안에서 민주당은 경기동향을 고려하여 소비세증액을 정지하는 탄력조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착수

- 이와 관련하여 내각부는 부정하고 있으나, 소비세증액 환경을 정비할 의도에서 높은 성장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음

(3) 평가

- 이상과 같은 정부전망치와 민간전망치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내년에는 일본경제가 부흥수요의 본격화에 힘입어 내수주도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임
-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전망, 민간연구기관 전망 모두 유럽재정위기의 심화 등을 배경으로 한 세계경제 침체, 엔고진행 및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공동화의 가속 등을 들고 있음
- 이러한 리스크 요인 외에 유가, 재정정책 등 전망의 전제조건이 되는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서는 정부, 민간 전망치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음
-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실질, 명목성장율로 모두 플러스로 일본경제가 디플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특징임

3

2012년 주요 정책과제

- 내년도 경제성장은 물론,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4가지 정도로 제시하였음

□ 일본재생전략

- 대지진 부흥과 경제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춰 최근 마무리된

「일본재생의 기본전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임

- 여기에는 2020년도까지 연평균 명목경제성장을 3%정도 외에 TPP를 비롯한 FTA도 반영, 당면한 중요과제로 디플레이의 종식도 목표로 설정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PP는 최근 일본 대외통상정책의 최대 화두이자 근간으로서 작년 11월 대외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지만, 여당내 TPP반대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의식, 노다 총리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익의 관점에서 TPP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함.
-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노다 총리, 일본이 본격적인 협상에 참여하게 되는 내년 봄까지 노다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임

□ 산업공동화 방지

- 2011년에는 산업공동화라는 용어가 최대검색어 중의 하나가 될 만큼 산업공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우려가 많았음
- 그러나 엔고, 대지진 영향으로 인한 전력부족난 등을 배경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산업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일본기업들의 급속한 대량탈출에(mass exodus)까지는 이르지 않았음
- 2012년에도 특히 엔고의 향방이 불투명한 만큼, 엔고대책·국내입지지원, 신산업 및 부가가치 분야 창출 지원책 등으로 산업공동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임

□ 증세

- 대지진 이후 부흥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임시증세안이 지진발생 8개월만에 일단락됨. 소득세 증세기간은 25년으로 연장, 법인세는 3년 후부터 감면, 경제제활성화에 배려하는 한편, 소비세는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존치(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일체개혁)
- 초점이 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거쳐 2013년 여름이후 현행 5%를 우선 2~3%인상한 다음 2015년까지 10%까지 인상하는 2단계 증세를 구상한 바 있음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 (1) 『정권의 시험대가 될 2012년 통상교섭』 미즈호종합연구소, 12월 27일
*출처: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research/r120101tpp.pdf>
- (2) 『일본의 신통상전략과 농업문제』 국제무역투자연구소, 12월 27일
*출처: <http://www.iti.or.jp/kikan86/86umada.pdf>
- (3) 『일본경제:신흥국을 통한 금융위기의 영향』 미즈호종합연구소, 12월 27일
*출처: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research/r120101japan.pdf>
- (4)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닛세이키초연구소, 12월 27일
*출처: <http://www.nli-research.co.jp/report/report/2012/01/rep01201-g.pdf>
- (5)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 중간정리』 경제산업성, 12월 29일
*출처: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sangyou/report_001_01.pdf
- (6) 『진입장벽, 자원재배분과 생산성 성장』 경제산업연구소, 12월 29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1e081.html>